

대학의 평생교육 실제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

강 태 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1. 머리말

전통적으로 대학은 학문 탐구의 장(場)이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학문 중심적이었으며, 그 교육 기회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엘리트들에게 국한해서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모습은 오늘날 크게 퇴색하였다. 전통적인 의미의 '학문 중심적' 교육과정은 대학 교육과정의 주류(主流)에서 이미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한 연령층 인구의 반 이상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학 교육은 이제 대중적이 되었으며 직업 교육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성격 변화에 비추어,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을 해야 하는 이른바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교육체제는 새로운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야 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학교나 대학의 취학 연령을 넘어선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적인 배려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서 교육을 마감했지만, 이제는 성인들도 계속해서 교육(학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직업 또는 일상에서 늘 발견하게 된다. 대학이 이러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

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학과 평생교육의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외국의 대학들에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외국의 대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문헌이나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몇몇 나라들의 사례에 국한된 소개가 될 것이다. 소개와 더불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2.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

대학에 흔히 요구되는 평생교육적 기능은 두 방향에서 규정되는 듯하다. 하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평생교육(평생학습)의 과정을 꾸준히 밟으며 직업적·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에 다녀 본 적이 없는 성인들이 새롭게 부딪치게 되는 교육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향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대학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래 대학은 학생들이

장래를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학문을 추구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일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즉, '평생학습자'를 키우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직업화' (vocationalization)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의 임무에는 대학 단계의 교육을 끝으로 교육을 마감하고 능숙한 직업인이 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하게 추가되었다. 이 추가된 부분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적 요구는 일리를 지닌다. 즉, 대학 교육은 교육을 마감하고 직업 현장에 들어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버리고, 직업에 종사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갈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대학 교육의 본류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적인 배려를 위해 대학 교육의 본류에 어떤 구조적 또는 체제적 변화가 덧붙여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 이 글에 요청된 사항이다. 즉, 여기에서는 후자의 방향(평생교육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적절한 교육 또는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과 관련해서 대학에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평생교육적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규 대학 교육 프로그램과 구분하여,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나라에 따라 이름들은 다양하지만, 흔히 '확장 프로그램' (extension program)이라는 범주로 제공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학 교육 기회 자체를 일반 성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변화시키는 정책들이다. 입학 허가의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교육의 과정을 융통성 있게 조직하는 등의 방안들이 구체적인 예들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학 교육의 모든 영역에 일반화된 경향은 아니지만 대학 교육의 '확장'으로써가 아니라 정규 과정 자체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앞의 예와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지목할 수 있는 추세는, 대학 밖에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의 결과를 대학의 위상을 가지고 인정하는 방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의 경험이나 교육 이력을 인정하는 '학점인정제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부분적으로 대학 교육의 정규 과정을 성인들이 이수하는 데 쉽도록 변화시키는 방안들과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순전히 인정 자체에만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들도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존의 대학이 대학 밖에서의 교육을 인정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대학이 아닌 공적 대행체(agent)나 제도가 대학 밖에서의 교육 또는 학습 결과를 대학 교육의 수준으로 인정하는 방안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세 방향의 변화가 비교적 최근에 평생교육이 교육적 논제로 부각되면서 비로소 대학에 일기 시작한 새로운 변화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이를테면 확장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꽤 오랫동안 대학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왔다. 여기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의 정책이나 방안들을 포함하여 대학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변화시키거나 채택하고 있는 방침이나 방안들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들이 대체로 위에서 정리한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변화들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대학교육의 확장

오래 전부터 대학은 지역사회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여겨 왔다.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정규 학

생들 외에 다른 일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교육적 혜택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전통 아래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미국의 주립 대학들은 이런 면에서 선구적인 사례를 보여왔다. 19세기에 이미 이 대학들은 지역사회 성원들에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전파하거나, 그들의 직업적 기능이나 지식을 쇄신시킬 수 있는 재훈련 과정을 제공하곤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사회 봉사의 취지에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평생교육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견지에서 대학들이 제공하는 교육 기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오늘날 확장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분히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대학 확장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대학이 운영하는 확장적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의 원형을 이루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초기의 대학 확장 프로그램이 사회 변화와 더불어 변모를 거듭하며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나 대학들은 확장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대학 조직을 갖추고 있다. 성인교육센터(adult education center)나 계속교육센터(continuing education center)를 갖추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확장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부서(division of educational extension, external studies department 등)를 두어 대학내 다양한 부문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등교육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주로 교육 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는데, 여가를 위한 활동이나 일반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룬다. 두 번째 부류는 대학의 정규 과정에 준하는 전문적인 과정을 수요자의 배경에 맞추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대학

에서의 교육 이수 전망을 타진하는 예비 과정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최신 이론이나 기술의 변화를 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프로그램 이수 결과는 대학에서 정규 학점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비교적 최근에 이 부류의 프로그램으로서 부각되는 형태 중의 하나는 산학협동 과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대학과 산업체가 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교육 수요자들에게도 개방한다) 특정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된 근로자들의 자기계발이나 재교육을 위한 단기 과정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정규 학위나 학점을 위한 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대학의 교육과정이 특정 산업체로 확장되어 나간 형태를 보여 주는데, 일반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 수준으로 표준화되어서 '교육산업'의 품목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부류는 취업이나 자격 취득 등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대행기관으로서 대학이 특정 자격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package)을 제공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기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의 결과로 대학이 인정하는 수료증이나 좀 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등이 주어지는데, 노동시장에서 그러한 인증을 개인의 고용가치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대학의 확장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대학 자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되지만, 교수진은 대학의 교수진을 활용하기보다 별도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

4. 대학교육의 유연화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 성인의 접근을 쉽게 열어가는 방안의 경우도, 대학 교육을 확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을 위한 전기(轉機)가 제기되기 전부터 대

학 교육의 팽창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강구해 오고 있었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는 대학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던 학생들과 다소 배경이나 자질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추세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기존의 교육 방식이나 교육적 표준을 계속해서 고집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하면, 미국의 경우 대학 교육의 팽창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무렵부터 눈에 띄게 이루어진다. 1944년 흔히 'GI Bill' 이라고 불리는 '퇴역군인 재적응법' (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이 발효되었다. 이 법으로 퇴역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연방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고, 군 복무를 마친 많은 성인들이 대학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을 받아들이게 된 대학들은 대학의 학사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 대학 생활과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돕기 시작했다. 학사 행정이나 교육의 과정 자체에도 그들을 고려하여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유럽의 경우 북미에 비해 대학 팽창이 훨씬 더디게 일어났고 규모도 작았지만, 대학생 인구 구성이 연령 측면에서 다양해지고 과거에 비해 고령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추세를 공유하였다. 특히, 북유럽의 경우, 평생교육을 제재화하는 견지에서 일(직장)과 대학의 회귀적 교육(recurrent education)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성인 인구들은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에서 대학 교육이 새로운 수요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유연화'의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유연화는 우선 입학 허가 기준에 융통성을 두는 데서 시작된다. 엄격하게 학업 위주의 요건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 진로가 아닌 다양한 진로를 걸어온 성인들이 나름의 배경을 근거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다양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별전형' 같은 입학 통로를 제공하고 있

다. 직업적 경험이나 사회적 업적 등을 감안해 주는 방안, 입학 후 예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유예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

입학한 성인 학생들의 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방안들도 유연화의 일환으로 강구된다. 개별적인 지도와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별교수 방식(tutor system)을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기도 하고, 일종의 학습 클리닉 또는 랩(lab)을 통하여 학업적 장애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열어 가고 있다. 상시적인 출석의 부담을 덜면서 개별적인 배려가 가능한 원격교육의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교육 평가 방안들을 도입하기도 한다.

현재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학 교육 안에서 꾸준히 실험되거나 도입되고 있는 성인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양식으로, 대학이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유연화하는 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학습계약' (learning contract)의 방식이다. 특정한 교수 단위(강좌, 수업)의 목표에서부터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며 어떤 점들을 준거로 평가할 것인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수와 학습자의 합의와 계약을 근거로 교육을 진행하는 양식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교육의 의의나 성과를 예견할 수 없는 학습자와 그 목표나 내용 심지어 평가 방식까지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일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방안의 옹호자들은 (특히, 성인교육 분야의 교육자들은) 이런 합의의 과정 자체가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는 반론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갖는 성인 학습자들이 스스로 교육에 몰입할 동기를 제공하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면서, 이 방식의 확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그대로 일반화되지는 않겠지만, 대학 교육이 평생교육적 배려를 위해 여러 부문을 유연화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 방안에 스며있는 원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즉, 성인들의 속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교육

적 조율과 함께 그들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촉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5. 대학 밖에서의 교육에 대한 인정

대학이 대학 밖에서 이루어진 학습에 대해 인정하는 방안들은 대학 교육 확장 프로그램과 역행적인 방향에서 취해지는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자체 프로그램을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그 성과를 수용하여 인정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의 과정을 관장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이 견지하는 기준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학 밖에서 이루어진 교육 경험이나 결과를 인정한다.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정 방식들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 자체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이다. 대학에 등록하여 특정한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그 과정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학습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과정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낭비가 없도록 대체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일종의 학점 인정 방식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이동하여 학업을 지속할 경우에 이전의 학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오래 전부터 널리 채택되어 온 것이다.

이 방안은 오래된 제도이지만, 최근에 평생교육적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측면을 추가해서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학점 인정 제도는 인정하는 주체 대학이 대체로 그 기관에 상응하는 수준이나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이루어진 선행 학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인정의 대상과 한도에서 크게 확대되어 있다. 대학 수준의 요건을 지닌 기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

정하는 양상에서, 대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훈련 기관에서의 학습과 경험은 물론, 일상적이거나 직업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학습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아직도 대학에 따라서 그 대상의 범위가 다양하지만, 혁신적으로 평생교육적 수요에 대응하려는 고등교육 기관들은 이른바 '체험 학습 인정' (accredita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으로 까지 확장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학점인정제도에서는 학생이 이수하고 있는 과정의 전체 학점 중 특정 비율 이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상한선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제한도 크게 완화되거나 아예 철폐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에 있는 '열린학습원' (Open Learning Agency)이 운영하는 '개방대학' (the Open College and Open University)은 학점 인정 대상과 한도에서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점은행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학점은행' (the Educational Credit Bank)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결과를 인정받아 이 은행에 '저축'하고 그 잔고가 학위 요건을 충족시킬 때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인정의 대상이나 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허용적이다. 물론 무조건 인정해주는 방식으로써 허용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학습의 결과가 입증될 때 비로소 학점 인정이 이루어진다.

대학 밖에서의 학습을 인정하는 다른 하나의 방안은, 대학에서 특정 과정을 이수하는 것과 결부시킴이 없이 그냥 학습 자체를 '공증하는'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점 인정 주체의 대학에서 현재 이수하고 있는 과정 중 일부의 이수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 등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이 학습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점에 대하여 대학의 권위를 바탕으로 공적인 인정을 해 주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는 뉴욕대학의 리젠트대학(Regents College)이

제공하는 '학점은행 서비스' (the Credit Bank Service)에서 볼 수 있다. 이 은행의 고객은 리젠트대학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누구나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룬 학습 결과를 그 은행에 적립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그 누적된 결과를 리젠트 대학의 권위로 보증되는 '학점인증서' (the Credit Bank Report)로 발급받을 수 있다.


6. 맺는 말

이제까지 외국의 대학들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한 경향이나 방안들에 대한 평가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한된 지면임을 감안하여 한 가지 우려를 첨부하는 것으로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대학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학문'만을 고집하거나 소수정예주의적 보수성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해 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교육 기회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대학 교육을 확장하는 대안들이 경제적 논리로 마름질되는 경향이 농후한 점은 기회가 많아지는 것에 마냥 자족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앞에서 살펴본 많은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속성 중의 하나는 '교육 수요'에 민감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건 서비스건 하나의 교육 상품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원리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대학 교육의 통정성(通整性)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학 교육이 수요가 있는(팔릴 수 있는) 모듈(module) 단위로 상품화되고 파편화되며, 그 모듈의 체계 안에서 강좌를 구성하고 가르치는 일이 교수의 직무가 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대학 교육은 교육 본질상의 준거가 아니라 '수요 충족'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교육하고 탐구하는 일에 일종의 비전문화(deskilling)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교수는 교육의 전체를 일관하여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조립하는 선반'(assembly line)의 한 모듈을 담당하는 하나의 체제 부속(附屬)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과격하고 비판적이라면, 그만큼 대학이 평생교육을 배려하는 정책들에서 통정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태중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의 교육열, 교육과 사회 계층, 평생교육 및 성인교육, 교육개혁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여러 편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